

■ K리그 클래식 24라운드 관전포인트



포항 김승대 전북 이재성 전남 이종호

김승대·이재성·이종호...
동아시안컵 우승멤버 합류

전남, 울산은 2번 모두 패한 광주와 맞대결



2015동아시안컵 휴식기를 마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가 12일 열리는 24라운드 6경기로 재개된다. 이번 라운드에선 상위권 6팀과 하위권 6팀이 맞대결을 펼친다. 단독선두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11위 부산과 격돌한다. 2위 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최하위 대전과 만난다. 3위 전남, 4위 서울은 각각 8위 광주, 10위 울산과 원정경기를 치른다. 2015동아시안컵 우승 멤버들도 소속팀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합류가 K리그 클래식(1부리그) 흥행에 호재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동아시안컵 우승 주역들 출격하나?

김신욱(27), 김승규(25·이상 울산), 김승대(24·포항), 이재성(23), 이주용(23), 김기희(26·이상 전북), 이종호(23·전남), 권창훈(21·수원) 등은 동아시안컵에서 한국이 1승2무로 우승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대표팀 경력이 많지 않은 김승대, 이재성, 이종호, 권창훈 등 젊은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이들은 10일 귀국했다. 소속팀에서 훈련한 팀 동료들과 달리 동아시안컵에서 2~3경기를 소화해 체력적으로 버거운 상황이다. 또 12일 K리그 클래식 24라운드 경기를 준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각 팀의 핵심 멤버다. 소속팀 경기에도 출전해 대표팀에 쏟아진 관심을 K리그 클래식 무대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전남·서울, 광주·울산 상대로 첫 승 도전

전남은 올 시즌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2번 모두 패했다. 전남이 올 시즌 승점 1도 따내지 못한 팀은 광주가 유일하다. 객관적 전력에선 뒤질 것이 없지만 이상하게도 광주를 만나면 고였다. 이번 경기는 광주의 홈에서 펼쳐진다. 수원(승점 40)에 승점 3을 뒤진 전남(승점 37)으로선 2위 추격을 위해서도 광주를 상대로 첫 승점이 필요하다.

서울은 울산과 2차례 맞붙어 1무1패에 그쳤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친한 후배인 울산 윤정환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웃지 못했다. 대전에서 공격수 아드리انو를 영입하는 등 전력을 보강해 후반기 반격을 노리는 서울은 울산전 시즌 첫 승과 함께 2위 추격을 버리고 있다.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기성용, 허벅지 부상 정밀검사
15일 뉴캐슬 경기 출전 불투명

기성용(26·스완지시티·사진)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5~2016시즌 출발은 산뜻하지 않았다. 시즌 개막전에서 당한 오른쪽 허벅지 부상 때문에 다음 경기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구단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1일(한국시간) '스완지시티가 기성용의 부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따르면 기성용은 12일 햄스트링 부상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15일 뉴캐슬과의 홈경기에는 출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성용은 9일 런던 스탬포드브릿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개막전에 선발출전했으나, 전반 41분 상대 진영에서 돌파를 시도하다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곧바로 책 코크와 교체됐다. 개리 몽크 스완지시티 감독은 첼시전 직후 기성용의 빠른 복귀를 바라면서도 "급하게 복귀시키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몽크 감독은 11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기성용이 오른쪽 허벅지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부상 정도는 다음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몽크 감독은 기성용이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한 뒤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이용재 “우한에서 부족한 나를 발견”

사커 피플

동아시안컵 김신욱 함류로 측면날개 포지션 유럽축구 보며 공부했지만 경기엔 허둥지둥 크로스 타이밍·위치선정 등 멀티능력 절실



이용재에게 2015동아시안컵은 시련의 장이었다. 그래도 그는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려면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어도 확실한 과제를 얻은 만큼 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며 밝게 웃었다. 스포츠동아DB

2015동아시안컵(1~9일·중국 우한)에서 통산 3번째(2003·2008·2015년)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은 축구대표팀 '슈틸리케호'는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당당히 개선했다. 대회 시상대에 올랐을 때나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 태극전사들 대부분의 표정은 밝았지만, 모두의 마음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활짝 웃은 반면, 일부는 쓰린 속을 달래야 했다. 이용재(24·V-바렌 나가사키)는 후자에 가까웠다. 동아시안컵 2경기(중국·일본전)에서 그의 모습은 분명 기대 이하였다.

이용재와의 대화는 우연히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귀국 항공편 바로 옆에 착석하면서 짧게나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밝은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앞좌석 머리받침대에 손가락 그림을 그려가며 자신의 부족함을 설명한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

2014인천아시아잔게임 우승 멤버인 이용재는 동아시안컵 출격에 앞서 이미 2차례 A매치를 소화했다. 6월 원정 2연전에서였다. 데뷔무대에서 그의 등장은 상당히 화려했다. '우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이 찍으면 통한

다'는 최근 한국축구의 법칙이 그에게도 적용됐다. 6월 11일 말레이시아 샤 알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평가전(3-0 승)이었다. 선발 원톱으로 나선 그는 1-0으로 앞선 후반 14분 썬기골을 성공시켰다. 첫 A매치에서 대뜸 데뷔골을 터트린 것이다. 이어 6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얀마와의 2018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2-0 승)에도 후반 33분 교체 투입돼 제 몫을 했다.

그러나 동아시안컵은 녹록치 않았다. 슈틸리케 감독은 대회 최종엔트리(23인)를 선정하며 이용재를 미드필더(MF)로 낙점했다. 6월 동남아 원정에서 그는 이정협(24·상주상무)과 공격수(FW)로 분류됐지만 장신(197.5cm) 골잡이 김신욱(27·울산현대)이 가세한 동아시안컵에선 측면을 담당해야 했다.

준비는 잘했다. 출국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열린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서울 이랜드FC와의 연습경기였다. 슈틸리케 감독은 경기 전날 이용재를 따로 불러 "측면 날개로 뛰라"고 지시했다. 곧장 이미지 트레이닝에 들어갔다. 유럽축구 주요 경기 동영상을 돌려보며 측면 공격수의 역할에 대해 연구했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2일 우한스포츠허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대회 1차전(2-0 승). 이용재는 후반 34분 이재성(23·전북현대)을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으며 분위기를 익혔다. 그는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진 5일 한일전(1-1 무)은 최악의 90분이었다. 경기 내내 허둥거

렸고,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했다. 나쁜 의미에서 '인생 경기'였다.

●수비 보강 과제 열다!

전방과 공격 2선 중앙에 배치됐다면 많은 움직임과 넓은 활동폭이 장기간 이용재가 빛날 수 있지만, 측면은 '맞지 않는' 옷이었다. 공격수답게 불을 동료와 주고받는 데만 익숙했다. 그러나 측면 날개는 문전 침투와 크로스 타이밍, 측면 풀백과의 위치 조정 등 신경 쓸 것이 많았다. 차질 불을 빼앗기면 측면 전체가 무주공산이 된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뒀어야 했다.

일본전에서 전방에 무게를 실은 대표팀이 공격 일변도로 나섰음에도, 이용재가 불을 잡으면 웬지 자신감 없는 듯한 장면이 자주 나온 것도 그래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 후 따가운 화살이 그에게 쏟아졌다. 비난의 중심에 섰다. 결국 9일 북한과의 대회 최종전(0-0 무)에는 나서지 못했다.

이용재는 '쿨'하게 인정했다. "비난받을 만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축구는 멀티 포지셔닝을 많이 강조한다. 나도 우한에서 또 다른 재능,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너무 아팠지만 내게 어떤 면이 부족했는지 발견했으니, 전혀 소득이 없는 건 아니다."

이용재는 귀국 환영행사를 마치고자마자 공항 지하 1층 미용실을 찾았다.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항공편을 기다리며 머리를 다듬던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남자에게도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포항에서 개최된 '2015 K리그 U-18 챔피언십'은 전 경기를 야간에 치르며 선수들에게 48시간의 휴식을 주는 등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호평을 받았다. 10일 열린 결승에서 승리한 전남 드래곤즈 U-18팀 광양제철고 선수들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U-18 챔피언십 '최적의 환경, 최고의 대회'

고교 선수들에게 야간경기 경험 제공 48시간 휴식일정·심판판정 등 성공적

포항에서 개최된 2015 K리그 U-18(18세 이하) 챔피언십이 10일 성공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칭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수들에게 승리에 대한 승부욕을 고취시킨 것은 물론 제대로 갖춰진 경기장에서 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올해 초 이 대회를 준

비하면서 천연잔디에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경기를 천연잔디에서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 양덕 1·2·3구장과 오천구장을 병행하면서 결승전만 포항 스틸야드에서 진행했다. 그 대신 야간경기 조건은 반드시 지켰다.

고등학교생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이었다. U-17 대표팀에 발탁된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야간경기 자체가 처음이었다. 대부분의 중·고교생들은 여름에도 피야벌이 내리쬐는 시간에 뛰어다녔다. 경기력 대결보다는 체력싸움

으로 변질돼 제대로 된 실력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프로축구연맹 김진형 구단지원팀장은 "대표팀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러 오더라도, 오랜 시간 경기장에 있지 않는다"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선 최소 48시간의 휴식 후 다음 경기를 치르도록 일정을 짰고, 경기 도중 롤링 브레이크도 실시했다. 그 덕에 선수들이 양질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우승팀인 전남 드래곤즈 U-18팀 광양제철고 김현수 감독은 "프로선수가 되면 거의 야간에 뛰어야 할 텐데 축구선수로서 이번 경험이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

분한 휴식으로 부상 위험을 덜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광양제철고 최의진은 "전용구장에서 야간경기를 할 수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뛰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대회에선 퇴장이 단 1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종 볼 수 있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도 없었다. 심판들의 정확한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상 부문에 최우수심판상을 포함시킨 효과가 있었다. 결승전에 적용한 6심제를 다음 대회에서도 유지해 판정의 정확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김정은, 동아시안컵 우승 북한여자축구대표팀 환대 북한 조선중앙TV는 10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동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여자축구대표팀을 맞이하기 위해 평양 순안국제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갔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김정은의 모습. 뉴스

“플라티니가 FIFA 회장 당선돼선 안 된다”



알리 빈 알 후세인(40·요르단)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은 11일(한국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미셸 플라티니(사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FIFA 회장에 당선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라티니 회장은 현 FIFA의 수뇌이자 시스템의 일부"라고 비난했다. 이어 플라티니 회장이 제시한 FIFA 개혁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충만하지 않다. 전 세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틸리케 감독, 유소년축구 위해 독일행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이 한국의 유소년축구 육성·지원을 위해 이용수 기술위원장, 황보관 기술교육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과 함께 독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12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13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방문에 동행한 뒤 17일 먼저 귀국한다. 슈틸리케 감독과 조사단은 13일 첫 일정으로 2014브라질월드컵 우승팀인 독일대표팀의 경기분석을 맡았던 업체를 방문하고, 14일에는 독일축구협회와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의 유소년 아카데미를 찾는다.